



# 형이 못 간 4강 아우가 해낸다

## U-17월드컵, 내일 새벽 개최국 나이지리아와 격돌 역대 전적 우위...이종호·손흥민 등 상승세 해볼 만

22년 만에 세계 8강에 오른 한국 U-17세 이하(U-17) 청소년축구대표팀이 아프리카 강호 나이지리아와 2009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4강 진출을 놓고 한판 대결을 벌인다.

이광중 감독이 이끄는 U-17 대표팀은 10일 오전 3시(이하 한국시간) 나이지리아 칼라바르에서 개최국 나이지리아와 대회 8강전을 치른다.

2승1패로 F조 2위를 차지해 1987년 캐나다 대회 8강 이후 22년 만에 조별리그를 통과했던 한국은 지난 6일 멕시코와 16강에서 연장 후반 47분 김동진(안동고)의 동점골로 1-1을 만들어 극적으로

연장전까지 끌고 간 뒤 결국 승부차기에 서 5-3으로 이겨 8강 무대를 밟게 됐다.

한국이 나이지리아를 꺾으면 사상 처음으로 대회 4강에 올라 스페인-우루과이 경기 승자와 맞붙는다.

한국축구가 FIFA 주관대회에서 4강에 오른 것은 1983년 멕시코에서 열린 20세 이하(U-20) 월드컵과 2002 한일 월드컵 뿐이다.

지난달 이집트에서 막을 내린 FIFA U-20 월드컵에서 8강까지 올랐지만, 아프리카 가나에 발목을 잡혀 더는 나아가지 못했다.

U-17 대표팀은 10년간 유소년 축구 전

임지도자로 유망주들을 길러온 이광중 감독의 지휘 아래 새 역사에 도전한다. '광양의 투니'로 불리는 최정방 스트라이커 이종호(광양제철고)를 비롯해 원포워드 손흥민(동북고), 미드필드 윤일록(진주고), 이종권(광양제철고) 등 프로축구 K-리그 클럽이 운영하는 유스팀 소속 선수들과 주장 김진수(신갈고)가 이끄는 포백 수비라인. 안진범(부경고) 등 발재가 이 좋은 미드필더들은 갈수록 짜임새를 더해 가고 있어 4강도 욕심내볼 만하다는 평가다.

한국은 역대 나이지리아와 맞대결에서 우위를 점했다. U-17 대표팀은 지난 4월 아랍에미리트(UAE) 알 아인에서 열린 4개국 친선대회에서 처음 만나 2-0 완승을 거뒀다. 당시 나이지리아 대표팀에는 해외파와 자국 프로팀 소속 선수들이 많이 빠져있지만 이종호는 썩기골을 넣은 기분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

# 포항 靑 왕중왕

## AFC 챔피언스리그 결승 알이티하드 꺾고 우승

'K-리그의 자존심' 포항 스틸러스가 사우디아라비아 강호 알이티하드를 꺾고 아시아 프로축구 정상에 올랐다.

포항은 7일 오후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09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후반 12분 노병준의 프리킥 선제골에 이어 21분 김형일의 헤딩 추가골이 터져 29분 모하메드 누르가 한 골을 만회하는 데 그친 알이티하드를 2-1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K-리그 팀이 이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린 것은 2006년 전북 현대에 이어 3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다.

포항으로서는 AFC 챔피언스리그가 출범하기 이전인 1997년과 1998년 아시안 클럽 챔피언스리그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이후 11년 만에 다시 아시아 프로축구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 150만 달러(약 18억원)까지 챙긴 포항은 다음 달 9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막하는 2009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에 아시아 대표로 출전한다.

올 시즌 리그 컵대회에 이어 AFC 챔피언스리그마저 제패한 포항은 K-리그에서도 정규리그 2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시즌 3관왕을 노릴 수 있게 됐다.



지난 7일 벌여진 제41회 청호배 광주·전남 배구대회가 55개팀 1천여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이틀간의 열전을 펼쳐져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별교제일고 체육관에서 열린 개최식 모습>

# 화순 고인돌·목포 영흥·순천 신흥중 우승

〈남자 동호인〉 〈여자 동호인〉 〈교직·직장부〉

남자동호인부에서 화순고인들이 결승에서 보성클럽(2위)을 제치고 1위의 기쁨을 누렸으며, 광양이글과 고흥스페이스팀이 각각 3위를 차지했다.

여자동호인부 결승에선 목포영흥이 여수동백(2위)을 누르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으며, 보성클럽과 광주행복서구가 3위 시상대에 섰다.

교직·직장부는 순천신흥중이 순천경찰서를 이기고 정상의 기쁨을 맛보았으며 고흥군청과 여수도원초가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조영호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을 떠나 배구를 사랑하는 동호인과 지역민들이 화합과 건강을 다지는 시간을 갖게 돼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한강에 뜬 요트 8일 서울 한강 난지요트장에서 열린 '제24회 서울-도쿄 요트 교환경기대회'에서 선수들이 한강을 힘차게 거르고 있다.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에 앞서 서울과 도쿄의 친선대회로 시작한 이 대회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매년 개최되고 있다.

# 조선대 검도 초당대 꺾고 을 2관왕

## 추계연맹전 우승...개인전에서 김민재 아쉬운 2위

조선대가 제40회 추계전국대학검도연맹전에서 정상에 올랐다.

조선대는 8일 경북 영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대학부 결승에서 초당대를 6-1로 가볍게 누르고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조선대 검도팀은 지난 4월 춘계연맹전 우승에 이어 올 전국대회 2관왕에 올랐으며, 지난 대전전국체전 2회전 탈락의 아쉬움을 달렸다.

특히 이번 대회는 1·2·3학년 주축으로 우승을 일궈낸 만큼 내년 시즌에서도 조선대가 전국 정상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이번 대회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이번 결승에서 조선대는 선봉으로 나선 김슬(3년)이 초당대 윤홍식에게 아쉽게 1-2로 패해 불안한 출발을 보이는 듯 했다. 하지만 뒤이어 나선 2위 정현교(1년)와 3위 김민재(2년)가 박종훈·이상욱을 2-0으로 제압하면서 경기 주도권을 빼앗았다.

4번째 경기에 나선 중견 유재동(3년)이

8일 서울 한강 난지요트장에서 열린 '제24회 서울-도쿄 요트 교환경기대회'에서 선수들이 한강을 힘차게 거르고 있다.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에 앞서 서울과 도쿄의 친선대회로 시작한 이 대회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연합뉴스

# 해남서 '한·일 청소년 배구' 최강자 가린다

## 여자부 9~11일, 남자부 23~25일

망골 해남에서 한·일 청소년들의 배구 강자가 가려진다.

9일부터 개최되는 '제12회 한·일 청소년 국제배구대회'는 오는 11일까지 중등 국가대표팀 여자부 경기가 열리며 23일부터 25일까지는 남자부 경기가 개최된다.

한국과 일본 남녀 대표팀의 경기로 양국 배구인들의 관심이 높은 이번 대회는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3년2선승제로 치러지며, 선수들의 기량에 따라 향

후 5년 후의 양국전력이 판가름되는 예비국가대표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남군은 활발한 스포츠마케팅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는 국제대회 유치에 적극 나서려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해남군은 이번 대회 유치를 위해 배구인 출신인 김홍식 군수를 비롯해 관계자들이 대한배구협회를 수차례 방문하며 스포츠마케팅을 펼쳐왔으며, 이번 대회에도 겨울철 전지훈련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 전남대 종합우승

## 광주 대학생 생활체육 축제 성료

제1회 광주시 대학생 생활체육 한마당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광주시생활체육회(회장 김창준) 주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전남대·조선대·호남대 등 12개 대학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폐기 넘치는 짧은시간의 한마당 큰 잔치였다.

이번 축제는 축구·테니스, 소프트볼 등 체육종목 8종목과 민속종목 발아구·족구, 줄타기 등 4종목에서 열전이 펼쳐졌다.

더기웠던 열전 속에 육상과 탁구 등에서 우승했던 최강 전남대가 종합우승 트로피를 안았으며, 2위 조선대, 3위호남대, 4위보건대, 5위광주대가 그 뒤를 이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HOMECON 홈컨 不動産 리서치**  
TEL:062-233-2222 H.P:010-3616-8698

**태양광발전소 부지 급구함**

- 지역 : 전남·북, 기타지역
- 용량 : 100KW이상~ 무제한
- 조건 : 민원해결

개발행위허가  
발전사업허가  
완료된 곳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10-7 유지빌딩 501  
(상무지구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사 옆)

**正心 正視 正行**  
명당 공인중개사 062)431-2834.  
(H.P) 010-6460-2834

▶전남 나주시 영신동  
- 배나무 과수원 수평 17년 430주  
- 청고 약 30평, 도로 사정양호  
- 매매가 평당 7천원

▶광주 광산구 용복동  
- 담 558평, 평당 9만원  
- 도로접, 투자기회 양호

▶전남 영광군 불갑면 지반리  
- 일아 2736㎡(7,180평), 평당 7천원  
- 대형차 진입가능

▶전남 보성군 북내면 장춘리  
- 일아 13800㎡ - 평당 5천원  
- 도로접, 남향, 이산 경사도양호

▶전남 함평 유곡리  
- 전 483p 매매가 3천2백만  
- 가족모지 및 주말농장  
- 모지지조전 매우 양호

▶광주 북구 태평동 영락공원 부근  
- 담 884㎡(281평) 매매가 3,500만  
- 현 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 아파트나 시세, 민원소지 없음  
- 도로접, 가족모지 및 주말농장 적합

▶전남 화순군 이만면 초방리  
- 일아 104,727㎡(32,000평) 매가 2억2천원  
- 관리지역 일부포함, 직은계곡 및 저수지  
- 원천 전나무 삼나무식재, 목장용지 가능

▶전남 화순군 화순읍 디지털  
- 일아 및 밭장 73,000평, 평당 1만2천  
- 도로접 일아이더 현 수평높은 편백나무  
- 숲, 당토지에 80평장종지, 별장소재

▶전남 담양군 웅진면 월계리  
- 일아 1,670평 평당10만  
- 계획관리지역 약 800평포함, 치장전입가능  
- 농전양관양호, 시설 및 전원주택지 적합

▶전남 담양군 남면 학산리  
- 대지 및 밭 653㎡(500평), 평당60만  
- 담양읍이 바라보이는 주변, 전담경매 매우  
- 양호, 실사용평수 약900평  
- 내부 건축가능한 대지 100평포함되어  
- 전원주택 및 시설,기초작업

▶담양군 금성면 봉림리  
- 일아 459,186㎡(13,842평), 평당225천  
- 2차선포장도로에 약 100㎡, 관리지역  
- 약5천평,지형 완경사이며 전담경매가능  
- 민원소지없음 각종시설,공용 및 목장용지 가능

▶담양군 금성면 대곡리  
- 대지 500평 및 1,000평, 평당22만  
- 2차선도로와 접해있으며 전원주택,  
- 공장,창고용 적합

▶전남 담양군 웅진면 광안리  
- 일아 9421㎡(5875평), 평당55만  
- 전제 계획관리지역, 민원소지없음, 2차  
- 선도로 약400평  
- 각종 편의시설 설치 가능하고  
- 투자기회 양호

▶전남 담양군 용면 월계리  
- 일아 2,023,002㎡(31만635평) 평당55천원  
- 2차선도로접 관리지역포함, 치장전입  
- 가능, 휴양림, 요양원 등 조성가능

▶전남 장성군 심서면 삼계리  
- 전2307평, 평당 18만원  
- 계획관리지역, 2차선도로500m접  
- 토지주변 김나무 170주 식재, 공장및 창  
- 고 또는 투자용으로 적합

▶전남 보성군 견훤면 수남리  
- 일아 2,567,157㎡(77만6,565평), 평당1만  
- 토지전제 임대가능, 현 반나무 조림지,  
- 80%이상 개발 가능, 토질 및 전량 양호

▶전북 순창군 동계면 이들리  
- 일아 28,165㎡ (4,200평), 가격은 협의후 결정  
- 차량접근 가능, 현 대농장 및 단감농장

**대표:성 불규 (법정등록번호 16-07-29)**  
전 도농간교외 행정·사회복지 센터  
전 도농간교외 행정·사회복지 센터  
(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  
전 도농간교외 행정·사회복지 센터  
(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  
전 도농간교외 행정·사회복지 센터  
(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  
전 도농간교외 행정·사회복지 센터  
(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

**해령법률경매**  
T:062)430-7117 H.P:011-629-0827 김필달 위치:법원정문앞

**근면주택(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면적(㎡)	건평(㎡)	층수가	비고
광안구	신항동	1004	1917	11	1차 연립
	신항동	2871	461	4	3층 연립
	신항동	2171	441	4	3층 연립
	신항동	2171	441	4	3층 연립
북구	신항동	1470	423	3	2층 연립
	신항동	1470	423	3	2층 연립
	신항동	1470	423	3	2층 연립
	신항동	1470	423	3	2층 연립
서구	신항동	1470	423	3	2층 연립
	신항동	1470	423	3	2층 연립
	신항동	1470	423	3	2층 연립
	신항동	1470	423	3	2층 연립

**근면주택(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면적(㎡)	건평(㎡)	층수가	비고
북구	신항동	1004	1917	11	1차 연립
	신항동	2871	461	4	3층 연립
	신항동	2171	441	4	3층 연립
	신항동	2171	441	4	3층 연립
북구	신항동	1470	423	3	2층 연립
	신항동	1470	423	3	2층 연립
	신항동	1470	423	3	2층 연립
	신항동	1470	423	3	2층 연립
서구	신항동	1470	423	3	2층 연립
	신항동	1470	423	3	2층 연립
	신항동	1470	423	3	2층 연립
	신항동	1470	423	3	2층 연립

**근면주택(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면적(㎡)	건평(㎡)	층수가	비고
북구	신항동	1004	1917	11	1차 연립
	신항동	2871	461	4	3층 연립
	신항동	2171	441	4	3층 연립
	신항동	2171	441	4	3층 연립
북구	신항동	1470	423	3	2층 연립
	신항동	1470	423	3	2층 연립
	신항동	1470	423	3	2층 연립
	신항동	1470	423	3	2층 연립
서구	신항동	1470	423	3	2층 연립
	신항동	1470	423	3	2층 연립
	신항동	1470	423	3	2층 연립
	신항동	1470	423	3	2층 연립

**근면주택(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면적(㎡)	건평(㎡)	층수가	비고
북구	신항동	1004	1917	11	1차 연립
	신항동	2871	461	4	3층 연립
	신항동	2171	441	4	3층 연립
	신항동	2171	441	4	3층 연립
북구	신항동	1470	423	3	2층 연립
	신항동	1470	423	3	2층 연립
	신항동	1470	423	3	2층 연립
	신항동	1470	423	3	2층 연립
서구	신항동	1470	423	3	2층 연립
	신항동	1470	423	3	2층 연립
	신항동	1470	423	3	2층 연립
	신항동	1470	423	3	2층 연립

**근면주택(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면적(㎡)	건평(㎡)	층수가	비고
북구	신항동	1004	1917	11	1차 연립
	신항동	2871	461	4	3층 연립
	신항동	2171	441	4	3층 연립
	신항동	2171	441	4	3층 연립
북구	신항동	1470	423	3	2층 연립
	신항동	1470	423	3	2층 연립
	신항동	1470	423	3	2층 연립
	신항동	1470	423	3	2층 연립
서구	신항동	1470	423	3	2층 연립
	신항동	1470	423	3	2층 연립
	신항동	1470	423	3	2층 연립
	신항동	1470	423	3	2층 연립